

■ 괴운(槐雲) 칼럼



좌우명(座右銘)에 관한 소고(小考)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좌우명(座右銘)은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반성의 재료로 삼는 격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좌우명은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에서 특별한 동기 부여를 위해 만드는 표어로 후한(後漢)의 학자 최원(崔瑗)에서 시작되었으며, 자리(座)의 오른쪽(右)에 일생의 지침이 될 좋은 글을 ‘좌불이예 새겨 놓고(銘)’ 생활의 거울로 삼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도 모토(이탈리아어: Motto, 라틴어: muttum, mutter)라고 부르는데, 주로 라틴어로 작성되지만 다른 아무 언어로도 작성될 수 있다. 따라서 좌우명은 주로 가슴에 새겨 둘 주요 속담이나 명언 등으로 자기가 나아가는 길에 큰 나침반(羅針盤)의 역할로 동서양 위인들도 즐겨 사용하였으며, 오늘날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회사, 학교, 관공서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이나 여러 기관에서도 ‘공명正大하게 살자’, ‘기본에 충실하자’, ‘넓게 알고,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꿈을 갖고 뜻을 펼치자’ 같은 순수 우리말로 된 좌우명도 많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명심보감(明心寶鑑), 채근담(菜根譚), 법구경(法句經) 등에 담긴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특히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된 좌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개인은 말을 삼가서 하고 행동은 신중히 하라는 근언신행(謹言慎行),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언행일치(言行一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뜻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기만성(大器晚成), 선한 사람에게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는 인자무적(仁者無敵), 편안하게 있을 때 앞으로 다가올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거안사의(居安思危) 등이 많이 쓰인다. 특히 작가들은 문필의 기록이 총명한 기억보다 낫다는 문필승총(鈍筆勝聰)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메모하는 사람을 따라 올 수 없다고 하는 메모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사자성어이다.

가정에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겸손하고 사양하는 미덕을 갖자는 겸양지덕(謙養之德), 건강이 가장 귀중한 복이라는 건강지복(健康至福), 남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고 즐겁게 살자는 경애화락(敬愛和樂) 등이 많다. 학교와 서원에서는 지덕체(智德體), 지인용(智仁勇),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教學相長),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초지일관

(初志一貫),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 널리 인간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천지에 가득 찬 크고 넓은 정기와 무엇에도 구애됨 없는 떼떈하고 호방한 기개를 기르라는 호연지기(浩然之氣) 등을 교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회사에서는 덕을 높이며 사업을 넓혀 나가라는 숭덕광업(崇德廣業)이, 관공서에는 모든 일에 미리 대비하면 근심할 일이 없다는 유비무한(有備無患)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음식점에는 천명의 손님이 만 번씩 온다는 뜻으로 많은 손님이 번갈아 계속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천객만래(千客萬來), 꽃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 마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화향천리 인향만리(花香千里 人香萬里) 등을 많이 사용한다.

(고)김영삼 대통령은 ‘큰 도에는 문이 없이 어디로도 통한다.’는 대도무문(大道無門)을 사용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명나라 홍자성(洪自誠)이 쓴 채근담에 나오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너그럽게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라는 대인준풍, 지기추상( 待人春風, 持己秋霜)에서 나온 춘풍추상(春風秋霜)이란 사자성어를 비서실에 선문화였다.

유명한 서양 인사들을 보면, 나폴레옹은 “1 퍼센트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를, 맥아더장군은 “그 사람의 높고 젊음은 그 사람의 나이가 아니고 신념이 높았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 있다.”를, 괴테는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를 좌우명으로 삼았다.

필자는 얼마 전 조선 선조 때 성리학자로 한 평생 검양을 실천한 청백리(淸白吏) 오리(梧理) 이원익(李元翼:1547-1634) 선생의 좌우명인 ‘나의 뜻과 행동은 나보다 나은(우수한)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라’는 ‘지행상방 분복하비(志行上方 分福下比)’란 여덟 글자의 좌우명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필자도 선고(先考)께서 지어 주신 ‘마음(뜻)은 산과 같이 넓(넓)고, 입은 병과 같이 다물어라(신중)’는 ‘입심여산 수구여병(立心如山 守口如瓶)’과 함께 필자가 직접 지은 ‘내 분수를 알고 본분을 잘 지키며, 내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라라’는 ‘수분지족 자강불식(守分知足 自強不息)’이란 좌우명을 액자로 만들어 책상 앞에 걸어 두기도 했다.

우리 안동권씨 동문들도 나만의 좌우명을 만들어, 항상 생각하고 마음속에 되새기며 힘든 일이 닥쳐도 좌우명에 따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실행해 봄이 어떨까요?



생활속의 한방건강



권 희 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바른자연치통원 원장

1. 가을에 사람을 바라보며  
평범한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생활한다. 우리는 늘 사람들과 함께 하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면 사람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나도 사람인데, 나에게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까? 물드는 가을 잎새를 보며,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살아있음’, ‘살아 있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햇살의 ‘살’처럼 빛으로 또는 화살의 ‘살’처럼 움직임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가을에 바라보는 사람은 단풍처럼 어여빠 물들은 결실로 보이기도 한다.

2. 몸과 마음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누면, 몸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음양적 관점으로 보면, 몸은 일정한 형태가 있는 음이요 마음은 자유로운 활동의 양이다. 음양이 어우러져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에게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라며 반문하기도 하다. 보이는 몸의 외형은 쉽지만, 몸 안을 아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마음은 더욱 보이지 않아,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현을 보고 알거나 짐작하게 된다. 몸은 하나인데, 몸 안에 있는 마음도 하나일까?



이달의 책

사람에 대한 예의

/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JTBC 보도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인 권석천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출간되었다. 칼럼이 나오는 날이면 진보보 보수네 하는 정치적 입장과는 상관없이 둘러가며 읽는 거의 유일한 글쟁이로 유명하다. 저자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무례를 범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묻는다. 그러면서 ‘나도 별수 없다’는 깨달음, 인간을 추락시키는 절망도, 인간을 구원하는 희망도 그 부근



에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없이 약한 인간도 약마가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가족, 친구, 사람에게 대한 마음이다. 오롯이 인간으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다. 악에 무릎 꿇지도, 용서

하지도 않겠다는 마음이다. 그리하여, 인간이란 한계는 오히려 구원이 된다”고 말한다.

책은 프롤로그 낯선 나와 마주치는 서늘한 순간, 1부 인간이라는 한계, 인간이라는 구원, 2부 어둠 속, 갑자기 불이 켜진다, 3부 사람에게 대한 예의, 4부 각자도생이라는 거짓말을 넘어서, 에필로그 즐거운 모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류와 정도는 사람별로 차이가 있고 때로는 크다. 차이를 이해하는 눈이 떠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깊어진다. 더 이해하고 하나 되는 소통의 단풍 속으로 매력의 인품(人品) 나오게 걸어 보자!

■ 이달의 시

썩은 시인

/ 권선옥

날더러 썩은 시인이라고  
시가 썩었다는 말이나.  
사람이 썩었다는 말이나.  
시가 썩었다면  
사람이 썩어서 시가 썩었을 테고  
사람이 썩었다면  
어찌 시가 썩지 않았겠느냐.  
사람이 썩으면  
시가 썩고  
시가 썩었으면  
이미 사람도 썩었다.

2020年 10月 宗報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9. 23 ~ 10. 27  
총 5,670,000원/100USD

총 납부자 190명  
\*해외(미국) 1명포함

| (이름순)        |        |             |        |            |        |             |        |            |        |             |        |           |        |                | (단위:원) |
|--------------|--------|-------------|--------|------------|--------|-------------|--------|------------|--------|-------------|--------|-----------|--------|----------------|--------|
| 권갑두(안동)      | 30,000 | 권덕중(서울성북)   | 30,000 | 권순덕(서울강남)  | 30,000 | 권영숙(서울강동)   | 30,000 | 권오걸(용인)    | 30,000 | 권옥재(서울강남)   | 30,000 | 권중훈(서울은평) | 30,000 | 권한상(부산)        | 30,000 |
| 권경한(포항)      | 30,000 | 권도혁(대구)     | 30,000 | 권순덕(진주)    | 30,000 | 권영술(안동)     | 30,000 | 권오경(경기남양주) | 30,000 | 권요택(전주)     | 30,000 | 권준화(대구)   | 30,000 | 권해근(진주)        | 30,000 |
| 권경호(대구)      | 30,000 | 권동일(안동)     | 30,000 | 권순형(서울강남)  | 30,000 | 권영식(대구)     | 30,000 | 권오국(안동)    | 30,000 | 권용대(안동)     | 30,000 | 권중길(서울구로) | 30,000 | 권현(영주)         | 30,000 |
| 권광선(영주)      | 30,000 | 권동철(광양)     | 30,000 | 권순호(성주)    | 30,000 | 권영식(밀양)     | 30,000 | 권오명(통영)    | 30,000 | 권용조(김해)     | 30,000 | 권중달(포항)   | 30,000 | 권혁경(경주)        | 30,000 |
| 권광호(청주)      | 30,000 | 권동한(포항)     | 30,000 | 권승현(강릉)    | 30,000 | 권영식(상주)     | 30,000 | 권오상(서울마포)  | 30,000 | 권용호(서울종랑)   | 30,000 | 권중석(서울동작) | 30,000 | 권혁근(경주 내남면)    | 30,000 |
| 권구만(대구)      | 30,000 | 권두일(영주)     | 30,000 | 권영국(대구)    | 30,000 | 권영우(음성)     | 30,000 | 권오선(이천)    | 30,000 | 권우곤(성남)     | 30,000 | 권중오(서울구로) | 30,000 | 권혁달(경주)        | 30,000 |
| 권구훈(경주)      | 30,000 | 권례원(대전)     | 30,000 | 권영근(밀양)    | 30,000 | 권영일(단양)     | 30,000 | 권오섭(영주)    | 30,000 | 권우범(서울강남)   | 30,000 | 권중진(대구)   | 30,000 | 권혁두(김해)        | 30,000 |
| 권규(봉화)       | 30,000 | 권만길(경기성남)   | 30,000 | 권영근(서울구로)  | 30,000 | 권영일(서울구로)   | 30,000 | 권오성(경기광명)  | 30,000 | 권욱(대구)      | 30,000 | 권지섭(서울금천) | 30,000 | 권혁래(성남)        | 30,000 |
| 권규봉(순천)      | 30,000 | 권만봉(경기광주)   | 30,000 | 권영달(제천)    | 30,000 | 권영재(경기고양)   | 30,000 | 권오수(대구)    | 30,000 | 권원상(서울성북)   | 30,000 | 권지안(천안)   | 30,000 | 권혁문(대구)        | 30,000 |
| 권기대(대구 달서구)  | 30,000 | 권만집(상주)     | 30,000 | 권영대(서울서대문) | 30,000 | 권영준(서울관악)   | 30,000 | 권오식(대구)    | 30,000 | 권원일(안동)     | 30,000 | 권찬기(경주)   | 30,000 | 권혁성(포항)        | 30,000 |
| 권기문(창원)      | 30,000 | 권명택(서울양천)   | 30,000 | 권영대(제천)    | 30,000 | 권영진(대구 북구)  | 30,000 | 권오실(성남)    | 30,000 | 권원탄(안동)     | 30,000 | 권창우(대전)   | 30,000 | 권혁일(원주)        | 30,000 |
| 권기범(수원)      | 30,000 | 권범순(대전)     | 30,000 | 권영도(영천)    | 30,000 | 권영철(제천)     | 30,000 | 권오용(서울용산)  | 30,000 | 권원홍(대구)     | 30,000 | 권창원(용인)   | 30,000 | 권혁조(안동)        | 30,000 |
| 권기복(대구)      | 30,000 | 권병덕(경기의정부)  | 30,000 | 권영도(창원)    | 30,000 | 권영춘(전주)     | 30,000 | 권오익(김포)    | 30,000 | 권위달(영덕)     | 30,000 | 권창호(고성)   | 30,000 | 권혁주(칠곡)        | 30,000 |
| 권기상(대전)      | 30,000 | 권병덕(인천)     | 30,000 | 권영돌(안동)    | 30,000 | 권영택(대구)     | 30,000 | 권오익(밀양)    | 30,000 | 권은수(포항)     | 30,000 | 권철진(포항)   | 30,000 | 권혁진(서울관악)      | 30,000 |
| 권기성(전주)      | 30,000 | 권병상(당진)     | 30,000 | 권영득(창원)    | 30,000 | 권영학(구미)     | 30,000 | 권오준(서울영등포) | 30,000 | 권익상(서울영등포)  | 30,000 | 권철희(대구)   | 30,000 | 권호달(서울구로)      | 30,000 |
| 권기만(용인)      | 30,000 | 권병채(영천)     | 30,000 | 권영모(대구)    | 30,000 | 권영현(김해)     | 30,000 | 권오중(경주)    | 30,000 | 권인혁(경주 황성동) | 30,000 | 권청일(대구)   | 30,000 | 권호성(영동)        | 30,000 |
| 권기웅(문경사근리)   | 30,000 | 권병환(삼척)     | 30,000 | 권영복(서울노원)  | 30,000 | 권영호(대구)     | 30,000 | 권오중(남양주)   | 30,000 | 권일홍(보령)     | 30,000 | 권춘택(영주)   | 30,000 | 권홍(정읍)         | 30,000 |
| 권기웅(문경, 점촌동) | 30,000 | 권상복(삼척 광동리) | 30,000 | 권영복(구미)    | 30,000 | 권영호(상주)     | 30,000 | 권오택(안동)    | 30,000 | 권자하(전주)     | 30,000 | 권충현(합천)   | 30,000 | 권후중(제천)        | 30,000 |
| 권기주(안동)      | 30,000 | 권상용(봉화)     | 30,000 | 권영복(김해)    | 30,000 | 권영환(대구 방촌동) | 30,000 | 권오학(서울양천)  | 30,000 | 권장환(경주)     | 30,000 | 권태갑(문경)   | 30,000 | 권흠(대구)         | 30,000 |
| 권기택(안동)      | 30,000 | 권선옥(대전)     | 30,000 | 권영석(서울은평)  | 30,000 | 권영환(의성)     | 30,000 | 권오혁(김포)    | 30,000 | 권장환(안동)     | 30,000 | 권태근(성남)   | 30,000 | 권희선(전주 동산동)    | 30,000 |
| 권기태(서울노원)    | 30,000 | 권성덕(영덕)     | 30,000 | 권영세(경주)    | 30,000 | 권오갑(경주)     | 30,000 | 권오현(서울동작)  | 30,000 | 권재목(부산)     | 30,000 | 권태주(전주)   | 30,000 | 지사지국 납부지역      |        |
| 권대영(서울금천)    | 30,000 | 권성윤(경기성남)   | 30,000 | 권영수(구미)    | 30,000 | 권오갑(대구)     | 30,000 | 권오훈(서울은평)  | 30,000 | 권재태(전주)     | 30,000 | 권태창(영주)   | 30,000 | 권동환(미국) 100USD |        |
| 권덕산(고창)      | 30,000 | 권세목(의성)     | 30,000 | 권영수(문경)    | 30,000 | 권오갑(안동 대현리) | 30,000 | 권오홍(경산)    | 30,000 | 권점술(정읍)     | 30,000 | 권태호(서울관악) | 30,000 | 9월 납부추가        |        |
| 권덕웅(서울양천)    | 30,000 | 권수웅(전주)     | 30,000 | 권영수(의성)    | 30,000 | 권오갑(영주)     | 30,000 | 권옥술(서울송파)  | 30,000 | 권정홍(산청)     | 30,000 | 권태훈(진천)   | 30,000 | 권영철(김해)        | 30,000 |